

되어 있다. 한편, 타이드 원조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War Chest의 투입여부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수은과 재

무부간의 War Chest 운영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해석방법의 차이로 알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개정된 미수은법에 반영된 것이다.

【김 재 철, 워싱턴사무소】

#### ◆ 호주 EFIC, 수출중소기업 앞 운전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EFIC)는 담보부족으로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EFIC Headway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중인 수출중소기업이 담보제공 없이도 대출한도의 최고 20%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Westpac, HSBC, ANZ, NAB,

CBA, BankWest 등 6개 금융기관이 EFIC의 동 프로그램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한 은행이다.

호주 정부는 본 지원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운전자본 부족으로 인한 수출기회 상실을 방지하여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선 우】

#### ◆ 미수은,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 지원

미수은이 지난 8월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MEX)의 Minatitlan 정유공장 현대화 3단계 사업에 2억 달러의 채무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건에 앞선 1단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가, 2단계 사업은 스페인 ECA인 Cesce가 각각 1.3억 달러와 3.5억 달러를 직접대출 및 보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미수은은 동 금융지원으로 인하여, 미국

내 40여개 중소기업이 PEMEX와 총2.2억 달러 상당의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도 미수은은 80% 이상의 금융이 중소기업과 연계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고용창출이라는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할 계획이다.

【이 진 희】

#### ◆ 캐나다 EDC, 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 2억 달러 신용공여

EDC는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 멕시코법인 앞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 캐나다로부터

생산된 자동차의 구매자금으로 활용될 약 2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공여키로 하였다.

본 건을 통해 EDC는 다임러크라이슬러 캐나다 및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대 멕시코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EDC의 지원대상국으로 1994년부터 2003년 중 EDC의 대 멕시코 지원금액은 총 143억 캐나다 달러에 이르렀다.

【박 해 선, 뉴욕사무소】

## 국제기구

### ◆ MIGA, 'Carbon Finance'형 투자사업 최초 지원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가 최근 캐나다 Biothermica Energy가 추진하는 엘살바도르 쓰레기매립장 개선사업에 200만 달러의 비상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MIGA가 첫 번째로 지원하는 Carbon Finance형 투자거래라는 데 의의가 있다. Carbon Finance란 교토 의정서(1997년 12월)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금융으로, 교토의정서 제12조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원칙<sup>4)</sup>에 따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소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도국 관련 프로젝트에 선진국이 제공하는 투자 및 금융을 지칭한다.

본 건 투자사업으로 엘살바도르의 온실가스가 감소하게 되면, 캐나다 Biothermica Energy는 그 감소된 온실가스양만큼 엘살바도르 정부로부터 CDM원칙에 따른 확인서를 수취하게 된다. 이 확인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CDM체제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시장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나, 세계은행, EU, 일본 등지에서 온실가스 톤당 3~5달러 선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업의 1단계는 사업대상지 쓰레기매립장에서 현재 연간 7,500톤씩 발생하는 고위험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저위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어 2단계 사업에서는 매립장 발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온실효과 측면에서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 가량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는 연간 14만 톤 내지 19만 톤을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MIGA의 보험은 일반적인 비상위험 보험과 마찬가지로 몰수, 전쟁, 계약위반 등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Carbon Finance형 거래에 있어 사업소재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험수혜자의 손실(Kyoto-related Risk)까지 보전해 준

4)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그 감소분을 투자한 당해 선진국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임.